

지자체 금고 유치전...“지역은행에 자금관리 역할 맡겨야”

광주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 ...지역경제 ‘지원군’
지역민 혈세 역외유출 막고 지역내 선순환 체계 마련 필요
부산·대구·전북 등 지역은행에 금고 맡겨 균형 발전 도모

광주·전남 지자체 금고 유치전이 ‘지방은행 vs 시중은행’ 구도로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에 자금관리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6조원대 규모 광주시 금고 운영 기관 신청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10조원대 전남도 금고 지정에 위한 유치 제안서 접수에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 2곳이 참여했다. 현재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 하나은행이 맡고 있는 순천시 금고는 이달 14일 신청 제안서를 받는다.

광주시 금고는 1969년부터 광주은행 독점체제로 운영됐다가 2012년 복수체제로 전환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 1금고, 전남도 2금고를 포함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1금고 6개, 2금고 16개의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목포·광주 광산구 금고를 신규 획득하고, 광주 동·서·북구는 수성에 성공

하며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 지역 시도 금고 선정에 사활을 걸었다.

광주은행 측은 “시중은행은 본점이 서울에 있어 조성된 자금을 본부에 집중해 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민 혈세로 조성된 공공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선순환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시금고 선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0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다른 시중은행을 제치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대출로 재투자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은행의 광주지역 기업대출은 4조5416억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96%(4조365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최근 4년 동안 1189억원(8915건)에 달하는 서민금융 지원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동구 중장로5가에 문을 연 포용금융센터에서는 430여 명의 금융 소외계층이 100억원 상당 자금지원을 받았고 200명의 소상공인이 마케팅·세무·상권 분석 등의 무료 경영컨설팅을 받았다.

지역 140여 개의 영업점과 240여 개의 열린코너 등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밀착 금융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순천의 경우 416명의 소상공인에 총 174억원 규모 코로나19 위기극복 신규 대출이 이뤄졌다. 광주은행은 ‘순천시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대출’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대출’ 등 정책자금을 편성해 지역민 이차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천지역 수신 규모(4380억원)를 크게 웃도는 6629억원을 대출하며 지역 내 자금순환을 도모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광주비엔날레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지역 국제행사를 공식 후원을 하는 등 지역 현안에 동참해왔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중점 사업인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260억원을 출연하며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은행은 출자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시금고 도전장을 내민 시중은행의 출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광주은행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1만2000명에 달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에 할당하면서 전 직원의 96%를 지역 인재로 채우기도 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를 몰고 온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1만5615건, 7287억원에 달한다.

또 ‘희망의 꽃피는 공부방’ ‘광주천 가구기’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등 지역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부산시 1금고에는 BNK부산은행이 선정되면서 부산은행은 공개경쟁 입찰이 도입된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주금고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게 됐다.

이처럼 부산을 비롯해 지역은행이 있는 대구, 울산, 전주 등에서는 지역은행들이 주금고를 꿰차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조밀한 영업망 구축 통해 지역민의 접근성 가장 높고, 공공자금을 역외로 유출 시키지 않고 지역에 집중시킬 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돼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에 서라도 수도권에 쏠려 영업 기반이 약해진 지방은행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 ‘광주형 일자리’ 중점 사업에 260억원을 출연하며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8월 출자협약을 맺은 송중욱(오른쪽) 광주은행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주암 휴게소 7월 매출 37% 급감

코로나19 여파...순천방향 9600만원 떨어져

이번 추석 연휴(9월29일~10월4일)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휴게소 매출이 지난해보다 23%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주암휴게소(순천 방향) 매출액은 1년 전 보다 9600만원 가량(-37%) 줄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73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49억원) 보다 23%(-2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6년 1조3246억원, 2017년 1조3549억원, 2018년 1조3842억원, 지난해 1조4304억원으로 매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올해 들어 월별 매출액 감소 폭은 1월 -19.8%에서 2월 -41.9%, 3월 -46.6%를 기록하며 급격한 매출 부진을 겪었다.

행락철인 4월 들어 -29.8%, 5월 -

16.5%, 6월 -19.6%, 7월 -19.2% 등 감소 폭을 줄여왔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8월 매출액은 24.7%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월별 매출액 감소율이 큰 10개 휴게소를 따져보니, 지난 7월 주암휴게소(순천 방향) 매출액은 1년 전 보다 9600만원 가량(-37%) 줄며 6번째로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올 들어 월별 매출액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1월 기흥휴게소(-41.7%), 2월 추풍령 부산방향 휴게소(-65.4%), 3월 오수 완주방향 휴게소(-85.2%), 4월 추풍령 부산방향 휴게소(-61.1%), 5월 " (-56.4%), 6월 " (-54.3%), 7월 " (53.2%), 8월 " (-55.3%)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의 매출부진은 폐업으로 이어졌다.

올해 1~8월 문을 닫은 휴게소 매장은 23곳으로, 1년 전(18건)보다 28%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스카프로 기본전환 해볼까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한 고객이 4층 매장서 가을철을 맞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스카프를 살펴보고 있다.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한 고객이 4층 매장서 가을철을 맞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스카프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전망 6분기 연속 부진

4분기 전망치 66... ‘올 영업실적 목표 미달’ 71.8% 응답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전망이 6분기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4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66으로 전분기(70)보다 하락했다.

광주지역 제조업 체감경기는 지난해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올해 영업실적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목표치 미달’은 71.8%에 달했고, ‘목표치 달성·근접’은 24.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목표치가 미달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들은 목표치 대비 평균 24%의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65)은 신차 출시 등 호재 요인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T·가전’(84) 역시 대내외 경기 위축으로 인한 모기업 제품수요 감

소, 홍수피해에 따른 원재료 손실 등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기계·금형(61)과 ‘철강·금속가공’(83)은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로도복권 (제931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14	15	23	25	35	43	3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7개 숫자일치		2,957,108,063		8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3,015,014		54	
3	5개 숫자일치		1,518,803		2,596	
4	4개 숫자일치		50,000		121,943	
5	3개 숫자일치		5,000		2,041,653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